

탐구를 통한 사회봉사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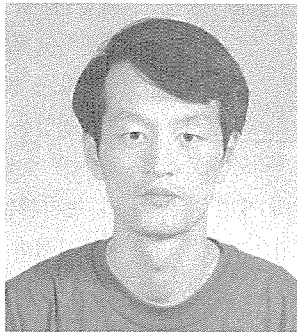
고등학교 2학년때 일이다. 새 공업 책을 책상위에 올려놓고는 선생님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떻게 생겼을까, 성격은 어떨까 등 호기심으로 교실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잠시후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단상위에 출석부, 공업책, 그 위에 도통한 나무가지를 올려놓으시곤 잠깐동안 목직한 침묵으로 교실안을 훑어보았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느닷없는 질문이 던져졌다. 공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대답하기 위해 자진해서 일어나는 학생은 물론 아무도 없었다. 한참 동안 침묵속에서 우리들의 심장은 한없이 뛰었다. 마침내 그는 출석부를 들고 호명하기 시작했다. 몇명의 친구가 일어났다 앉았다. 나는 속으로 제발 호명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을 조였다. 그러나 그리 흔치 않은 성 때문에 이름이 불리워지고 말았다. 대책도 없이 일어나 긴장된 말투로 『공업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라고 순간적으로 내심 생각한 바를 말한 것이다. 사실 공업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배우기 위해 수업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후 1982년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방대하고 깊은 전자공학이란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섰는지 그 끝은 어딘지조차 어림잡기가 어렵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품화 된 무수한 아이템들이 홍수를 이룬다. 전문분야의 범위가 더욱 좁아지며 고도화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 경쟁대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국제적 첨단기술전쟁의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뿐만 아니라 공학도라면 한번쯤 회의에 빠져 자문하는

캠퍼스 발언대



남 승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것이 있다. 내가 하는 이 분야의 연구는 이미 선진국 기술에 비해 여러해가 뒤져있고 골동품이 되어버린 듯한 그들의 옛 기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낙담이 들 때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만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밀려 반은 타의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듯 뚜렷한 목적도 없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부단히 가야만 한다.

어느날 나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분당에 간 적이 있다. 이 지역은 다소 분양신청경쟁률이 치열한 곳이었다. 접수장소로 가보니 아니나 다

를까 만원사례였다. 내가 신청하려던 평수의 아파트 분양기준은 저축총액과 저축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2백가구 분양의 그 평수에 1백여명 가량이 줄을 서 신청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거의 끝에 서있던 나는 좀체로 줄이 줄지를 않자 접수자의 성향과 현재까지의 접수인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뒷사람의 양해를 얻고 맨앞 접수대로 가 보았다. 서류 검토관계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다. 접수대장을 보니 나보다 저축횟수며 저축총액이 위인 사람이 많았다. 일말의 기대가 그들 앞에서 낙심으로 변해 버렸다. 더욱이 놀란 것은 접수번호가 5천번대를 상회하고 있었다. 2백가구에 5천명이 넘는 사실에 뒤로 돌아가 신청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접수하려면 2시간은 죽히 서서 기다려야 하고 당첨확률은 아주 적다는 계산을 하며 잠깐동안 고민하다 그 경쟁대열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다음날 신문을 펼쳐 분양신청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내가 신청한 아파트 분양경쟁률은 3대1이었다. 접수번호를 5천번대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겉으로 들어난 빈 껍질을 알맹이마저 본 듯 쉽게 해석하고 판단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너무 앞섰다고 생각하는 선진기술을 보고 시작점에서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아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좋은 말이 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 훗날 우리가 건네준 바톤을 이어 받은 후대들이 그들보다 앞서 뛰는 날을 기대해 본다.